News p/5



메르스 불안 다시 고조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제3244호 www.metroseoul.co.kr

Industry p/14



SKT 데이터요금 200만명

'이재용三星' 성사될까



핵심기업 삼성전자 지배력 약해 두고두고 화근
최지성팀도 우왕좌왕… '국제 먹이감' 전략 가능성

이슈 분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이재용의 삼성'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잘 작동될 수 있을 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3세 승계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 합병이 불발할 때에는 별 다른 대안도 없이 헤지펀드 등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무주공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이 밝힌 공식적인 합병 목적은 '양사 사업 시너지를 통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건설·상사와 제일모직의 옷·레저·식자재·조경 등의 사업부문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역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KCC에 자사주 매각 결정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관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번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방편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합병에 성공하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4.06%의 삼성전자 지분을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다.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까지 활용하면 이 부회장이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2.18%로 늘어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7.55%다.

하지만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 순환출자 지배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극히 취약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이 부회장은 소외된다. 엘리엇이 주요 주주자격으로 경영에 관여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뜻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시 지분 상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속세를 낼 실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상장사 지분을 전부 상속할 경우 납부해야 상속세(5조~6조원으로 추정)를 삼성SDS 지분(11.25%)을 팔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합병에 실패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 매각에도 위험부담이 따른다.

합병이 성사되면 자신의 지분을 팔아도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08%)을 통해 삼성SDS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엔 삼성SDS에 대한 우회 지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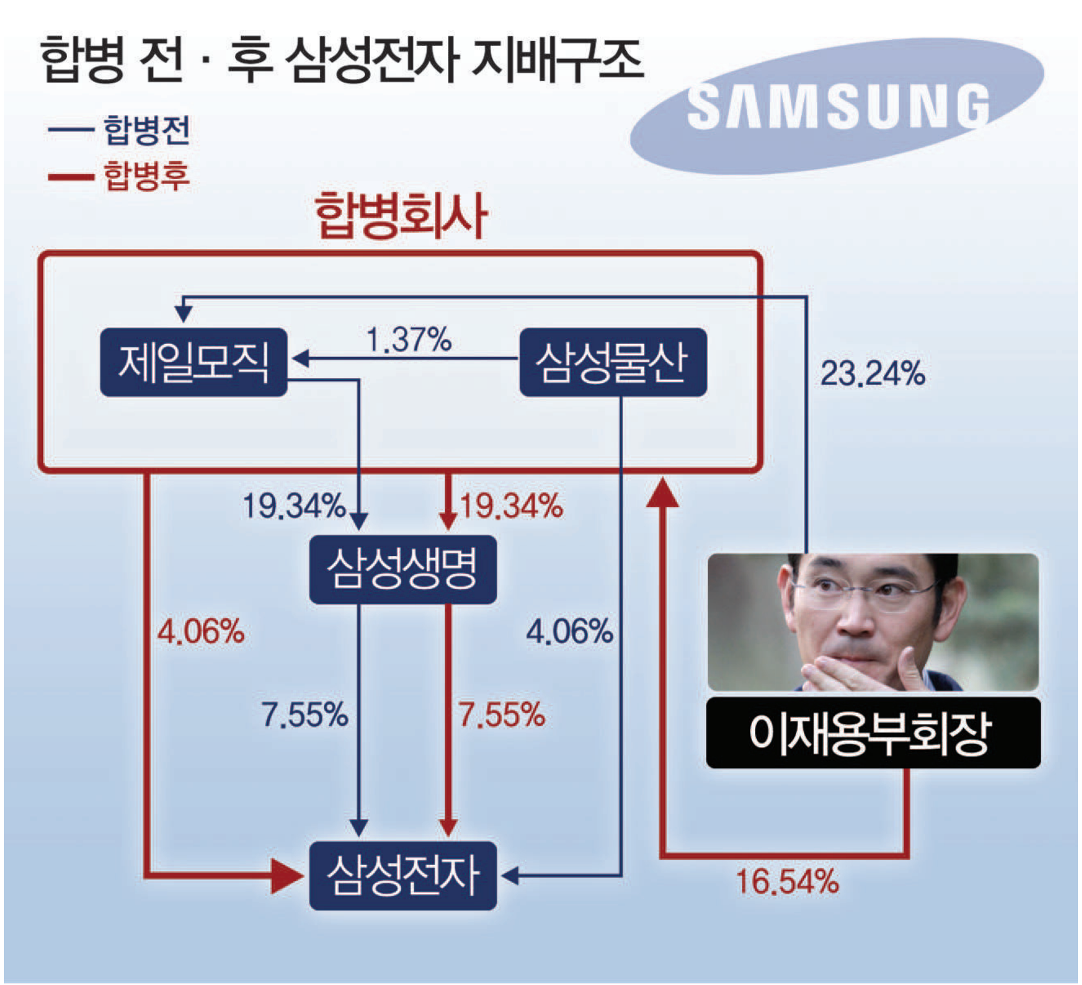
여기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컨트롤 타워가 헛발질을 연발하고 있어 어떤 '블랙스완'이 나타날 지 모른다.

최지성 실장팀은 엘리엇이 이미 연초 삼성물산 등에 합병계획을 문의하는 등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허점 투성이의 합병 안을 강행한 이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2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ISS(기관투자자서비스) 뉴욕 본사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삼성물산은 부랴부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뉴욕에 가지 않는다. 지난 19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설명한 것이 전부"라고 뒤집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삼성의 컨트롤 타워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합병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재용의 삼성'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제로센·야마토 만든 미쓰비시, 장갑차로 '부활'

美 해병대 장갑차 납품 가능성… 英·美 군수업체 반색
아베 무기 수출 프로젝트의 핵심축… 日전쟁 능력 뒷받침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수품 생산의 중심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장갑차 개발로 군수산업 부활에 나섰다.

미쓰비시는 현재 미군 해병대의 장갑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장갑차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무기수출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는 진주만기습 직후 악명을 떨쳤던 제로센 전투기와 일본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 전함을 만든 전범기업이다. 미쓰비시의 부활은 일본 군수산업의 부활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도쿄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상륙전에 쓰이는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개발해 지난 1월 미군 해병대 최고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미쓰비시가 개발한 신형 장갑차는 미군 해병대가 사용 중인 AAV7 장갑차보다 세배 가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미군 해병대 측에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군 해병대의 호평을 받은 신형 장갑차는 아직 초기모델이다.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AAV7 제조사인 영국의 BAE 시스템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신형 장갑차 차체 디자인에서 파트너십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사 역시 미쓰비시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애초 2012년 전후 최초로 창설된 상륙부대를 위해 신형 장갑차를 개발했다. 상륙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던 AAV7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자 위대에게 불만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4월 일본의 무기수출 제한 철폐는 미쓰비시가 신형 장갑차의 해외시장 수출을 노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의 일부분으로 무기수출 제한 철폐를 추진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의 무기수출 프로젝트에서 머지않아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미쓰비시의 신형 장갑차 외에도 산호초 위를 달릴 수 있는 장갑차의 개발에도 관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분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수산업이 장갑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쓰비시는 2차대전 당시 전투기, 군함, 전차 등 군수산업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의 진주만 기습 이후 맹위를 떨쳤던 제로센(A6M zero) 전투기와 일본 제국해군 내 거함거포주의자들의 우상이자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 전함도 미쓰비시의 제품이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위해 출격을 준비 중인 제로센 전투기(왼쪽)와 1941년 시험 항해 중인 야마토 전함.

"180도 바뀐 대일정책, 국민은 어리둥절"

문재인, 한·일수교 50주년에 급변한 정책 비판 힘실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4일 한·일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급변한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갑작스럽게 180도 (정책을) 바꿔 (한·일 간 갈등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하겠다니 국민이 어리둥절해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도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발전도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환영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었다"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이라는 투 트랙 대응이 맞다"며 "과거사도 한·일 관계의 발전 속에서 끌어가야 하고,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시민단체의 대일정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허울뿐인 화해와 상생을 위해 내려놓거나 묻을 수 있는 짐이 아니(다)"며 "성과에 급급한 외교에 떠밀려 주도권을 잃거나 섣부른 타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4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발언 중인 김복동 할머니. /뉴시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한·일수교 50주년 축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다"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가 무능해 늙은이들이 몇 십년 동안 나와서 이렇게 외쳐도 해결을 못해주고 있다"며 "여자인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버무리지 말고 회담 때 모든 것이 청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오늘부터 국군 단독 상륙훈련… 천왕봉함 첫 참가

우리군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단독으로 연대급 상륙훈련을 실시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해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2200여명과 해병대 1500여명 등 총 병력 3700여명이 참여한다. 또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함정 23척과 육·해·공군의 항공기 45대, 상륙돌격장갑차 36대 등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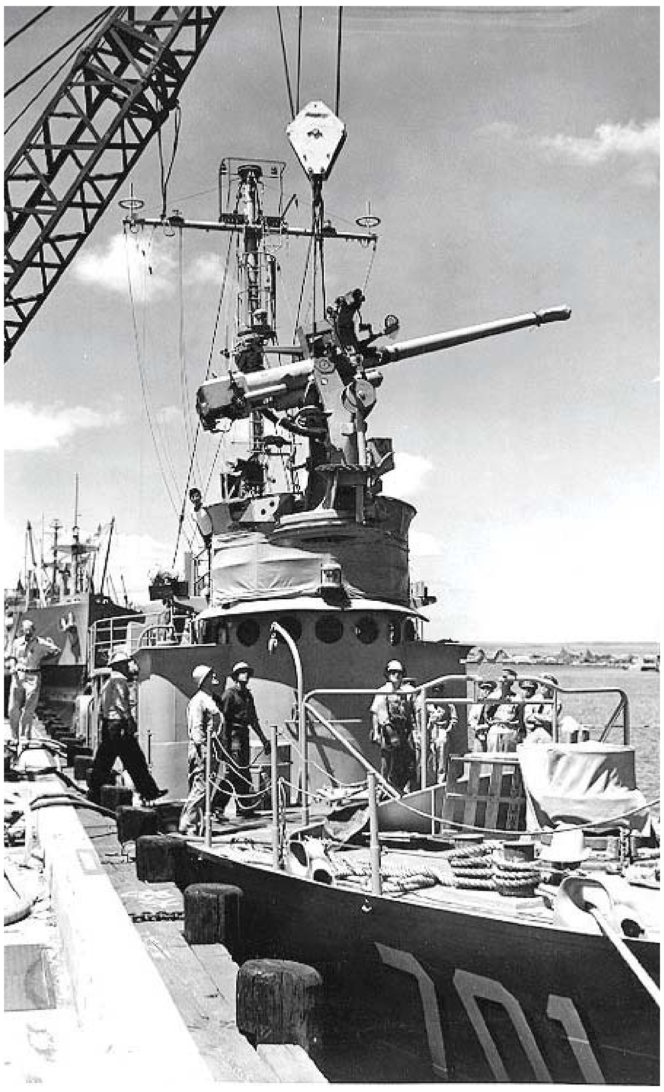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한국군 단독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합동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가전력들은 훈련기간 중 적 해상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전력 해상기동을 비롯해 상륙해안의 위협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해상침투, 해안정찰, 소해 등 선견부대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규모의 함포·항공 화력지원 등의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륙목표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함 천왕봉함(4900톤급)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천왕봉함은 완전 무장 상륙병력 300여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 상륙헬기 2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송병형기자



6·25 당시 우리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투함인 백두산함(PC 701). 전쟁 직전 우리 해군은 국민의 성금으로 미군으로부터 백두산함을 구입해 인수했다. 백두산함은 전쟁이 발발한 25일 진해항을 출항, 상륙을 시도하기 위해 접근하는 북한의 대형 무장수송선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결국 격침시켰다. 이른바 대한해협 해전이었다. 북한은 상륙작전으로 남한 내부의 남로당 세력과 합세해 후방을 점령해 나갈 계획이었다.

살처분 가축사체더미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정부, 전염병 사후관리 손놔 전국 곳곳 방치
토양·지하수 병균 오염 확인 검증조차 안해



가축사체 미분해 현황사진.

전염병으로 인해 무더기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사체더미가 전국 곳곳에서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사실이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이 우려된다. 또 토양과 지하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소독제, 항생물질,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가축의 전염병에 불과하다며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낙타를 매개체로 인간에게 전파됐다. 가축 관리에 소홀했던 중동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949곳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면서 실제 매몰지 수는 5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축을 대규모로 살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의 구제역돼지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 시료 분석을 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리터당 최대 112.2㎎ 검출됐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침출수 오염 판독의 지표다. 또 포름알데히드 같은 소독제와 항생물질도 검출됐다.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까지 검출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였다. 환경부는 이 지역을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속관찰 매몰지로 구분했지만 추가조사 없이 방치했다.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되면 현장 정밀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매몰지를 이설하거나 침출수 수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같이 방치된 곳은 지속관찰 매몰지 59곳 중 25곳이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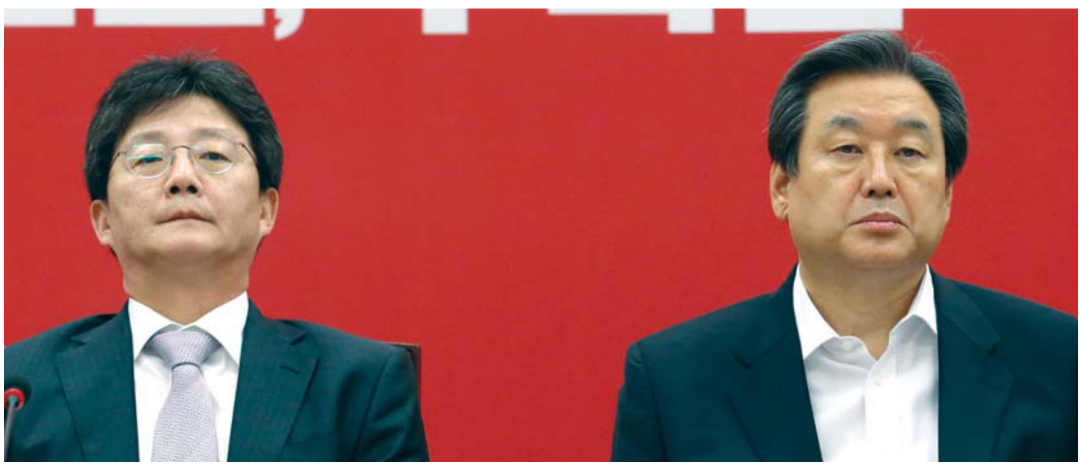
환경부는 경북 안동의 매몰지 등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7개소를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 침출수 유출 조사를 위한 관측정 설치 기준을 지자체장에게 일임한 탓에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곳 중 3151곳에는 기준조차 없었다.

조사를 해야 할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명무실했다. 가축 매몰지 인근 4만6948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기법을 이용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오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 매몰지를 이설할 경우에도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하나마나한 검사가 됐다.

기존 매몰지 주변 토양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2010년 매몰했다가 2013년 이설한 경기도 양주 매몰지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링젠스가 일반적인 수치의 420배를 웃돌았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주변의 60배까지 검출된 곳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2013년 관리기간 3년이 경과한 가축매몰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엉터리로 작성했다.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사방법으로 인해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지가 농경지 등의 용도로 활용됐다. 경기도의 경우만 2227곳 중 1356곳이 가축사체 분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최고중진연석회의장의 김무성-유승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코너에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임박… 폭풍전야

박 대통령 복심 김재원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24일 국회는 이로 인해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라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수정됐다.

박 대통령도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책무라며 쐐기를 박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의 의중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청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충돌 없이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청 회동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메르스 종식 후 대통령 사과 가능

청와대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방문 도중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만나 메르스 퇴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메르스 퇴치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사과 직후 논평을 통해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청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지난 22일 대국민성명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여권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메르스와 관련해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등에서 몇 차례 사과성 발언을 했을 뿐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사태 종결 뒤에 잘못된 점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고,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에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고 최초 환자 발생 때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내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명 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는 큰 손실을 봤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재난 극복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습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사태 초기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비판에 열중했던 박 대통령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사과가 아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成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 소환

2007년 연말 특사 청탁 받아 盧 "접근했지만 거절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건평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가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직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점을 언론에 알린다. 변호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평씨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건평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김씨와 접촉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특별수사팀이 건평씨를 직접 소환한 것을 두고 특사 로비 의혹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교통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버스 노사, 막판 협상 돌입

결렬시 오전 4시부터 파업 시, 비상대책 마련 분주

서울버스 노사가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 결렬 시 노조는 오는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 7.29% 인상과 휴식시간 확보, 단체 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도 시행, 무사고 포상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현재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으며 협상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버스노조가 지난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 투표에서 90.57%가 찬성해 파업을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는 협상 타결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시간대 증편 운행하고, 막차시간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임차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이와 함께 택시·자가용 이용자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홍원기자 hong@

진급 후 과중업무 스트레스 자살 '공무상 재해'

예비군 동대장이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을 맡게 된 뒤 늘어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여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A씨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그후 지역대장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A씨는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 새로 맡게 된 지역대장은 이전보다 관리해야 할 인원이 수십 배 많았고, 업무도 늘면서 스트레스가 컸다.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2001년 4월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평소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의 영향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종전보다 늘어난 업무로 과로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의 성격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동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대전현충원 유엔참전국 국기 게양식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유엔참전국 국기 게양식에서 권율정 대전현충원장과 최경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간호사관생도와 함께 유엔기를 들고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현충원은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다음 달 27일까지 태극기와 유엔기, 유엔참전국 국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북제재로 사업 무산, 국가 책임없어"

法 "위기상황 대응한 것… 위법성 없다"

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가 시행돼 사업이 무산됐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24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오랜 기간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5·24 조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 금지한 것이라며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았다.

/유선준기자 rsunjun@

메르스 방역 헛점투성이… 감염자 계속 발생

보건당국, 병원 예의주시… 진정세 판단 유보
173번 환자 동선서 추가 감염땐 3차유행 시작



부분 폐쇄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자 무기한 폐쇄연장을 결정했다. 메르스 확산이 고개를 들면서 강동경희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슈퍼전파자가 다시 '3차 유행'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과 24일 7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메르스 환자는 179명으로 늘었다. 잠시 주춤하던 메르스 확산이 다시 고개를 쳐 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감염이 확인된 173번 환자가 약 7300명과 밀접접촉을 했고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응급요원 137번째 환자(55)가 다시 감염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23일 확진된 173번 환자(70·여)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로 당시 응급실에 머물던 76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4번 환자(75)는 지난 4일과 8일, 9일 삼성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137번이 감염의 매개체로 추정된다. 삼성병원 응급요원인 137번은 지난 2일 증상 발현 이후 10일까지 통제 없이 병원과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잠재적 슈퍼전파자로 꼽혔다.

또 이날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감염된 118번 환자(67·여)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175번 환자(74)가 됐다. 118번은 지난달 25~27일 평택굿모닝에서 슈퍼확산자 14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로 175번 환자는 가족감염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처럼 상황이 안좋아지자 '메르스 3차 유행'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4일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에는 진정세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을 못 드리겠다"고 털어놓았다. 또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경기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후에 앞으로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6월 둘째주가 지나면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1차 마지노선이던 '평택성모병원 방어선 구축'인 2차 감염자 격리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2차로 내세운 마지노선은 24일까지 부분 폐쇄키로 한 삼성서울병원이었다.

하지만 이 병원 이송요원인 137번(55) 환자가 감염된 채 열흘 가까이 병원은 물론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3번째로 설정한 마지노선이 바로 24일이다. 그러나 4차 감염과 병원밖 감염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3차 마지노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3차 마지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국이 4차 마지노선을 고민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76번(75·여) 환자에서 173번(70·여) 환자로 이어지는 서울 강동구 메르스 확산 상황에 있다. 강동경희병원이 3차 유행의 중요 변수가 된 이유는 지난 9일 사망한 7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뒤 강동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벌써 10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173번 환자가 바로 당국이 '갈림길'로 지목한 환자다.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 내원자의 보호자인 요양보호사 173번 환자는 감염된 이후 비격리 상태에서 지역내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9곳을 전전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173번 환자와 최소 7500여 명이 접촉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173번 환자의 동선에서 추가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평택성모병원의 1차 메르스 유행과 삼성서울병원의 2차 메르스 유행에 이어 3차 메르스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삼성병원발 3차 유행 역시 잠재되어 있어 사실상 두 병원에서 메르스 확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이재용 국가적 재난을 후계 공식화 계기로 활용"



23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사과인사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참여연대 "이재용 대국민사과 주체로도 부적절"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겸 삼성생명복지재단 이사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대해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사과문 낭독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과를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긍정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치료야 당연한 것이고 손해배상 등등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tny****), "악어의 눈물"(다음 아이디 roehd) 등 삼성의 책임론을 강조하거나 이재용 부회장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어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 속한 그룹의 실질적 대표가 국민을 향해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고 밝혔다.

/조한진기자 hjc@

근로정신대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무일푼으로 동원된 이들은 이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들였다. 양국의 재판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 또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1심은 미쓰비시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비쓰비시 측이 서류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간끌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을 요청했으나 1명당 '199엔(1854원)'이 지급되면서 공분케 했다.

앞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승소와 패소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할머니들과 시민모단체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연미란기자 actor@

신세계, 면세점 주차장 확보 경쟁 '열세'

대형버스 수용공간 경쟁 후보 8곳 중 7위
남대문로 통행속도 서울시 평균보다 느려

신세계그룹(회장 정용진)이 최근 면세점 입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주차공간 확보 경쟁에서 열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 면세점 부지인 본점에서 주차장까지의 소요 시간은 신세계가 예상한 10분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버스 수용 공간은 경쟁 업체 8곳 가운데 7위 수준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차량 정체가 심한 명동 상권에 면세점 부지를 낙점했으면서도 뚜렷한 주차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시내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 중 주차시설 편의성 면에서 열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동상권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늘면서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방문객 1148만명 중 중국인 관광객은 3명에 1명 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명 중 6명꼴로 명동과 소공동 일대 면세점을 방문하고 있다. 중구청(청장 최창식)에 따르면 명동에만 평일 하루 200대의 버스가 오가며 주말에는 500대 이상이 통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소공동과 명동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월평균 152건이나 된다. 이는 2014년 76건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 이유는 개별 여행보다 관광버스를 타고 패키지 여행을 하기 때문이다. 버스 패키지 여행객의 90%가 요우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관세청에 면세점 인근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한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후보업체 주차공간 현황

HDC신라면세점 (393대)	용산역 이면용지에 대형버스 350대 전용 주차장 신설 추진 용산구청과 43대 규모 공용 주차장 활용 업무협약
SK네트웍스 (175대)	동대문 케레스타 건물 주변 대형버스 33대 주차공간 확보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종묘 등 반경 1km 공영 주차장 활용
현대백화점 (135대)	도심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별관 등 대형버스 35대 주차공간 보유 인근 탄현주차장(135대) 활용 위해 강남구청과 업무협약
한화갤러리아 (100대)	63빌딩 내 자체 주차공간·63길 주차장·한강 공용주차장 활용
이랜드 (100대)	서교동 면세점 용지 내 대형버스 10대 주차공간 조성 망원지구 공영 주차장·상암동 평화의공원 주차장 연계사용
롯데 (27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등 동대문 주차시설 공용 활용 협약 롯데피트인 인근 공영·민영 주차장·사설 주차장 8곳 이용 협의중

신세계그룹은 면세점 부지인 본점 반경 2.5km 이내의 주차장과 임차 계약을 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신세계 측은 직선 거리로 2km이면 실제 버스로 이동하는 거리가 2.5km, 이동 시간이 1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2014년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본점 인근(시청역~회현사거리~남산2호터널 북단) 양방향 통행속도는 17.6km로 서울시 평균인 25.7km보다 8.1km 느리다. 차량 통행이 많은 피크시간대인 정오~오후 2시, 오후 5시~7시의 통행속도는 각각 16.3km, 15.6km다. 특히 본점 입구를 지나는 남대문로의 통행속도는 평균 14km로 서울시 평균속도보다 11.7km 더디다. 이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간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버스 수용 능력도 56대로 경쟁 업체 가운데 7위 수준이다.

주차공간은 HDC신라면세점이 393대를 확보해 1위다. 이어 SK네트웍스(175대)·현대백화점(135대)·한화갤러리아·이랜드(100대)·신세계(56대)·롯데(27대) 순이다. 신세계는 HDC신라면세점과 비교했을 때 7분의 1 수준이다.

익명을 요청한 면세점 입찰 후보기업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1월 정부에 주차장 확보 법제화를 요청한 뒤 사업자 사이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면서 "명동상권은 특히나 교통체증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하게 여겨졌던만큼 신세계가 7월 예정된 관세청 심사 전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7월 초에 15명 선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서류심사·실사·최종프레젠테이션(PT)·질의응답 등을 거쳐 7월 중순께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쌍용건설, 잇단 수주… 정상화 가속

동양도 첫 민자사업 맡아
법정관리 졸업 후 회복세

쌍용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이 인수·합병(M&A) 이후 빠르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올 초 3년 만에 주택사업에 뛰어 들었다.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와 M&A 이후 처음으로 민자사업을 수주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현재 5곳(총 5333가구)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시공예정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곳은 부산사직아시아드(914가구)다. 이 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김해장유삼문(722가구)▲서울상도장승배기(2300가구) ▲서울뚝섬2구역(764가구)▲서울풍납동(633가구) 등 4곳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예정사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건설은 연말까지 이들 조합과 본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3월 3년 만에 신입사원 78명을 채용한데 이어 해외수주 강화를 위해 경력직원도 모집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건설 수주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로 공사 투입원가를 추산하거나 기성관리, 전도금(현장경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엔지니어)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 지 두 달여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빠르게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고 해외에서도 상당수 공사입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G건설에 매각된 동양건설산업도 지난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법정관리 졸업 이후 첫 민자사업 수주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전면 해상 일대 22만㎡ 부지에 200석 규모의 레저용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짓는 1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다.

이 회사는 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채용이 마감되는 대로 분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편의점 '담배' 판매량 빠르게 회복



판매 감소율, 1월 30%대 → 지난달부터 한자릿 수
매출 비중 50%까지 상승… 세수증가 1조 넘을 듯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아래 담배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상했지만 상반기 동안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금연 효과보다는 세수 확대를 위한 서민 증세였다는 지적이다.

24일 ㄱ편의점 업체가 상반기(1월부터 6월23일까지) 담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담배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돼 감소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월별 판매량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1월 -33% ▲2월 -22.4% ▲3월 -14.9% ▲4월 -10.7% ▲5월 -8.6% ▲6월(1~23일) -7.4%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부터 매달 10%씩 감소세가 둔화되더니 5월부터는 한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ㄴ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1월 -29.3% ▲2월 -22.9% ▲3월 -15.7% ▲4월 -12.3% ▲5월 -10.8% ▲6월(1~23일) -9.1%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담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편의점 담배 판매액도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이 최대 80%까지 오르면서 편의점의 담배 판매액은 크게 늘었다.

ㄷ편의점의 경우 월별 담배 판매량은 ▲1월 -36.6% ▲2월 -26.4% ▲3월 -19.3% ▲4월 -14.7% ▲5월 -12.0% ▲6월(1~23일) -10.7% 등을 나타냈다. 담배 매출은 ▲1월 0.4% ▲2월 27.5% ▲3월 38.0% ▲4월 43.3% ▲5월 48.2% ▲6월(1~23일) 51.8%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연초 담배 매출이 줄면서 담배를 사러 왔다가 함께 구매하는 물품의 매출도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상반기 담배 판매량 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이 편의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 인상이 세수 증가에는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 폭은 담배 소비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00억원에서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1~5월 걷힌 담뱃세는 작년 동기보다 8800억원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세수로 지난해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기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담뱃값 인상안이 나올 때부터 금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건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담배와 같은 품목에 세금을 올리면서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각별한 마음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새로워지겠습니다
KB가 더 각별한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금융그룹
[스타비]
별을 형상화한 KB의 심볼마크로서 반짝이는 별처럼
국민 가까이에서 밝은 희망을 드리겠다는 KB의 마음입니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확대 '울며겨자먹기'

임종룡, 서민금융지원 요청
銀, 10%이내 상품 속속 내놔
저축銀, 고객 이탈 우려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

지난 2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 KB국민, 우리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장과 만나 "현재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의 문턱을 낮춰 저신용등급의 대출 수요자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일조해달라는 의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시중은행, 10%대 중금리대출 확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지주회사 현장 간담회와 은행장 간담회(22일),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23일)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0%대 중금리 상품을 활성화해 대출시장 양극화를 없애고 금리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그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정책금융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당국의 행보에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 은행권의 속내다. 결국 은행권에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상품을 내놔야 하는 셈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정책에 발맞춰 잇달아 5~10%이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통해 최저 5.94%의 '위비 모바일 대출'을 선보였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9.7% 금리를 적용하는 '위비 모바일 대출'은 출범 한달이 안된 24일 현재 누적 대출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리 5.39%~7.68%에 달하는 '스피드업(Speedup) 새내기 대출'과 '직장인 대출'을 출시했다.

이밖에 IBK기업은행은 내달 모바일 통합플랫폼 'i-ONE뱅크'에 중금리 대출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으로 중금리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전산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 연체율 상승·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 우려 지적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금리 대출은 저신용 고객을 은행으로 유입하는 동시에 연체율과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신용자 유입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가뜩이나 예대마진이 감소하고 있는데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출 구조를 바꾸는 등 취지는 좋지만 금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와 복지는 같은 선상에 놓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에 앓는 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서 중금리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고객 이탈 우려가 심하다"며 "은행권과의 제휴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로 6~10등급 고객에게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6%대 수준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20%대 후반에서 30%에 달한다.

금융지주 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함께 있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상품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은행의 내부성과체계(KPI)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장기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9% 금리에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징검다리론'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주거와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금융' 날개 달고 'KB손보' 공식 출범

김병헌 KB손보 대표 "새로운 토털금융서비스 제공"
윤종규 KB금융 회장 "리딩금융그룹 위상 회복할 것"

KB손해보험이 공식 출범하면서 KB금융그룹의 12번째 가족이 됐다.

KB손보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KB손보 사옥 KB아트홀에서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KB손보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병헌 전 LIG손보 대표가 로 선임됐다. 허정수 전 KB국민은행 재무관리 본부장은 최고재무책임(CFO)으로, 신응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근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심재호 전 삼성생명 구조조정본부 인력팀 상무가 신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김병헌 KB손해보험 초대 대표이사.

◆ KB손보, 내실성장 추구

김병헌 KB손보 대표는 출범식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국내경제 소비 위축 ▲저성장과 저금리 지속 ▲IFRS 도입 등의 제도변화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를 위기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임직원에게 "KB손보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성장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한 경영과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핵심가치의 실천과 체질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계열사 간 적극적인 시너지 창출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KB금융, 역량·신뢰회복에 집중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축사를 통해 KB손보의 새 출발을 환영했다.

윤 회장은 "KB금융은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도 은행과 카드, 증권에서 서민금융과 손해보험에 이르기까지 전 금융영역에 걸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KB가 진정한 리딩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데 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KB손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룹이 재도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며 '리딩금융그룹의 위상 회복'을 당부했다.

임 회장은 또 "KB손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배기자 bobae@



신한생명, 베트남 하노이 주재사무소 개소 신한생명은 24일 베트남 롯데센터에서 하노이주재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왼쪽부터)김철모 신한생명 하노이사무소장, 허영택 신한은행 베트남법인장, 류항하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응우웬 꾸옥 홍 총리실 국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등이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생명 제공

이주열 "메르스發 소비위축 줄고 있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일부 소비지표들의 부진이 지난주 이후 소폭이나마 완화된 조짐이 있다"며 "경제주체들도 (불안을 가지기보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은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채무협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크게 3가지"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리스크는 메르스 사태의 파급효과"라고 꼽았다.

다만 최근 들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 주말 조사한 3주차의 소비 관련 속보 지표를 보니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1~2주차 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 "서비스 산업 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제주체들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경제심리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총재는 "지난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나고서 나온 표현이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이었다는 해석이 있지만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점진적이라 하더라도 추이는 잘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발 채무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1%대 저금리 시대, 공개입찰 단지 상가 인기

좋은 점포 선정 가능 배후수요도 안정적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상가 투시도.

단지 내 상가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대의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다. 특히 단지 상가의 경우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좋은 점포를 선점할 수 있는데다, 배후수요도 안정적으로 갖춰 인기가 높다.

24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공개입찰을 통한 단지 내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입찰 방식이란 아파트처럼 청약일을 정해놓고, 공급자가 정한 예정가(내정가) 이상의 최고 금액을 써넣은 입찰자가 낙찰을 받거나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착순 또는 수의계약 방식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선착순 또는 수의계약은 공급자의 지인이나 조합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좋은 점포를 선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요자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공정한 공개입찰 방식의 단지 상가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GS건설이 최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개입찰에 부친 센트럴자이와 리버뷰자이 상가만 보더라도 입찰 경쟁률이 각각 29대 1, 15대 1이나 됐다. 낙찰률도 평균 177%, 173%에 달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5%까지 인하하면서 수익형부동산인 상가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안정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이 가능한 공개입찰 단지 상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LA1·2블록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상가를 내달 분양한다. 전 매장이 1층 스트리트몰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24~45㎡, 총 19개 점포다. 높은 전용률과 층고를 적용해 실사용 면적이 넓고, 공간활용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호반건설은 충남 천안 불당지구에서 '천안 불당 호반베르디움1차' 단지 상가를 같은 달 분양한다. 스트리트 상가로 구성되고, 1096가구 대단지를 배후수요로 갖췄다. 맞은편으로 아산 탕정신도시 교육 부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분양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의 상가 '트램스퀘어'도 분양에 들어간다. 총 183호실 규모다. 전용률이 55%에 달하며, 개별창고와 높은 층고, 테라스 등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에서는 '구리갈매 아이파크' 주상복합 상가인 '아이파크 애비뉴(가칭)'가 9월 분양할 예정이다. 경춘선 복선전철 갈매역이 상가 바로 앞이라 단지 내 상가이면서 근린상가 역할까지 할 전망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한국감정원-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력 양해각서 한국감정원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종대(왼쪽 다섯번째) 한국감정원장과 최계운(왼쪽 네번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전국 아파트 시총 50조원 증가

규제완화·저금리 영향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상반기에만 5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규제완화, 전세난, 초저금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늘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아파트 706만6644가구의 시가총액은 약 2071조5483억원이다. 지난해 말 2022조3352억원보다 49조2131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말보다 15조8052억원 늘어난 695조430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4조5812억원 늘면서 증가액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108조8863억원이다.

구별로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3구'가 상위에 랭크됐다. 강남구 시가총액이 104조8359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조5285억원가량 증가했고, 서초구(2조2182억원)와 송파구(1조8034억원) 순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599조636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조6166억원이 늘었다. 다음으로 대구(7조1363억원), 부산(3조6027억원), 인천(2조7906억원), 광주(1조8171억원)에서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 여파로 대전시의 시가총액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57조1199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이 올해 6월 57조432억원으로 767억원 빠졌다. /박선옥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분양 돌입

26일 견본주택 개관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4단지 부분투시도.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은 오는 26일 수원 광교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림산업이 처음으로 공급하는 테라스하우스로 지하 1층 ~지상 4층 35개동, 총 576가구로 구성됐다. 블록별 단지규모는 ▲B3블록 전용면적 84~273㎡ 317가구(21개동) ▲B4블록 전용면적 111~164㎡ 259가구(14개동)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전 가구는 테라스 설계가 도입됐고, 최상층(4층)은 다락방과 연계한 옥상 테라스가 시공된다. 1층 일부는 테라스외에도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층을 제공한다. 테라스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소 14㎡에서 최대 94㎡며, 전용률은 79~81%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는 성죽공원과 솔내공원, 열림공원, 생태하천 등이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광교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광교상현IC, 서수지IC), 영동고속도로(동수원IC)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광교초병설유치원, 광교초, 광교중, 광교홍재도서관 등 학교와 교육시설도 인접해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8일(3블록), 9일(4블록)에 각각 발표된다. 당첨자계약은 다음달 15일~17일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수원시 이의동 1351-5번지(광교1동 주민센터 인근)에 마련된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성남신흥2지구, 수주전 과열

27일까지 부재자투표 매표행위 부작용 우려

성남 수정구 신흥2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림산업과 대우·GS건설 컨소시엄 간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LH 성남사업단이 첫 시도한 홍보공영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신흥2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대우·GS건설이 금지된 홍보요원을 파견해 조합원들에게 개별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품·향응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7일까지 부재자투표가 진행돼 매표행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매표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부재자투표를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LH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12억원의 주민부담금을 투입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LH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공문만 각 시공사에 보낼 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과 업계 관계자는 "신흥2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혼탁전으로 치달을 경우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LH의 조속하고 투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옥기자

맥주·빙과·제습기株 "반갑다, 무더위"

| 마켓인사이트 |

가전株 '싱글'
위닉스, 장마 앞두고 상승세
'냉방기 불티' 하이마트 장밋빛

음료株 '벙글'
이른 더위에 맥주 판매 증가
롯데칠성·하이트진로 신바람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여름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로 여름가전주와 맥주·음료·빙과 관련 종목들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료·빙과·제습기 업체들의 수익개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다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기보단 실적 등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습기 판매업체 '위닉스'의 주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날 위닉스는 전일대비 0.31% 오른 1만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5일 1만3650원까지 빠졌던 주가는 장마철 예보와 함께 다시 상승랠리를 타고 있다.

지난해 유례 없는 마른 장마로 제습기 판매량이 줄었으나, 올해는 해외 신규 고객 확보와 수출 확대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으로의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출액은 전년(400억원)보다 두배 증가한 8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 가전업체를 통해 중국에 공기청정기를 공급 중"이라면서 "지난해 150억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름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롯데하이마트'도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름 더위로 냉방기 판매가 증가하고, 신규 출점 감소로 비용도 함께 줄어들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롯데하이마트의 2~3분기 실적의 주요 관건은 에어컨 판매 증가에 달려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왔고, 올 여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 덕분에 에어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빙과·음료·맥주업체들의 여름철 특수도 예상된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빙그레의 주가 흐름도 눈에 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김승 SK증권 연구원은 "빙과 부문은 4월에 있었던 가격인상 효과와 5월말부터 시작된 이른 더위 등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4~5%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호상·드링크 부문에서도 기저효과와 비용 통제를 통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역시 여름철 특수로 신바람이 났다.

특히 롯데칠성은 2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액면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날개를 달고 비상 중이다.

롯데칠성의 주가는 지난 3월 20일 165만5000원에서 이달 12일 253만2000원까지 급상승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장중 신고가인 299만원까지 치솟아 3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하이트진로'의 주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24일 하이트진로는 전일대비 3.81% 상승한 2만3150원에 마감했다. 지난 17일부터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

김승 연구원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찍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맥주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하이트진로의 맥주부문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적립식 랩어카운트' 2종

장점만 쏙 뽑아 안전하게 목돈 만든다

분산 투자·펀드관리 강화

저금리,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때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상품은 필수다.

하지만 투자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 중에 금융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적립식 투자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관리받는 적립식 랩'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아이 글로벌 적립식 랩'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위험이 분산되는 적립식의 장점에 랩어카운트의 특징을 접목시켜 펀드 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켰다. 자산배분부터 상품선정, 시장 상황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해 적립식의 장점을 살리고,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자산배분위원회의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MP)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고수익형, 중수익형, 안정형 중 고객의 성향에 따라 적립식 랩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랩어카운트에 담는 투자 상품은 국내에서 투자 가능한 공모펀드 가운데 당사 상품 전문가 그룹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선정된다.

정량적 분석에는 금융상품의 과거 수익률 뿐만 아니라 변동성, 단위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 정도, 벤치마크와의 상관관계, 과거 손실 발생 시 회복 소요 기간 등 다양한 객관적 지표가 활용된다. 정성적 분석에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 철학과 투자 프로세스 등이 반영된다.

미래에셋증권의 적립식 랩은 사전에 고객이 미리 정한 수익률이나 손실률에 도달하면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고객과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목표손익률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아이 글로벌 적립식 랩'은 자녀의 교육자금, 유학자금 등의 희망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플랜을 세워주고 증여세 없는 최대 월 적립금을 산출해주며 증여신고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드림케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평생 관리받는 적립식 랩'의 최소가입금액은 20만원, '우리아이 글로벌 적립식 랩'의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주가 '뒷걸음'

환율·지배구조 이슈 발목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만9000원 (-1.44%)하락한 13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최저가인 125만4000원을 기록한 17일 이후 4거래일 동안 상승했지만 5일만에 그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이처럼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개선은 되겠지만 시장의 기대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870억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 이유는 스마트폰과 PC 사업부문의 판매 성과가 시장의 기대만큼 좋지 않아서다.

이승우 연구원은 "갤럭시S6 출하량이 기대치를 밑돌고 네트워크 장비 사업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돼 실적 개선 정도는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모바일 사업 부문의 경우 갤럭시S6를 포함한 스마트폰 출하량이 7500만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네크워크 장비와 PC 사업의 실적도 부진해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했던 3조



삼성전자 주가흐름.

5000억원보다 12% 낮은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향후 모바일 사업의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철 연구원은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 등 신제품 출시로 인해 2분기 실적은 전 분기 대비 개선될 것" 이라면서도 "향후 모바일 사업은 실적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반도체 사업은 2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세철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PC 수요 약세와 PC 메모리저장장치(DRAM)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에 비해 3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을 전망한다"고 관측했다.

특히 오는 2017년 평택 반도체 라인이 본격화 될 경우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M/S) 1위 달성도 가능하다고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승우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하면서도 "시장 기대보다 못미치는 실적과 환율과 지배구조 이슈로 주가가 약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들 (환율과 지배구조 등)이 우선 해결돼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주가 약세 흐름은 7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8월 신학기 이후 신제품 판매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땅콩·독점·청탁… 한진그룹, 갈수록 태산

조현아 조기복귀 언급에 여론 질타
일감몰아주기·인사청탁 압수수색도

대한항공 회항 사태 이후 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를 시사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받고 있는 싸이버스카이는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똑같이 지분 33.3%씩을 쥐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회사로, 지난해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약 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약 36억원 대비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총 매출의 83.7%에 달하는 규모다.

계열사별 매출을 보면 대한항공 35억6000만원, 한국공항 2억4900만원, 칼호텔네트워크 8300만원, 한진 5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12억3100만원을 내면서 2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싸이버스카이는 최근 5년간 2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가 늘어났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함께 이번에는 조 회장의 언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어쇼가 열린 르부르제 공항에서 세 자녀의 역할 변화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세 명이 각자 전문성이 있으니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겠다"고 답한 것이다.

조 회장이 장녀의 경영 일선 복귀를 암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마당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파리에어쇼에서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신규 항공기 100대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거대 권력 집단인 항공기 제조사들의 지지를 얻어 현지에서 진행 중인 회항 사건 재판을 유리하게 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꾀하기 위해 경영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3950억원에 당기순손실 457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진그룹은 검찰의 수사까지 받으며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2일 서울 소공동 한진과 공항동 대한항공,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 회장에게 청탁해 자신의 처남을 그룹 관계사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발단이다.

한진그룹 측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사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법인으로 한진그룹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한화 "태양광 발전설비 필요하신 분~"

'해피선샤인' 캠페인

전국 복지기관에 무료 설치
내달 1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한화그룹은 태양광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인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피선샤인' 캠페인은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한화그룹이 태양광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다.

이에 한화는 2011년부터 전국의 복지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기증·지원해 전기료 절감을 돕고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전국의 118개 복지기관에 807㎾h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했다.

이는 1년 동안 어린 소나무 15만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와 유사하다고 한화는 전했다.



한화직원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의 원리와 작동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 제공

지난해부터는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포함한 유지·보수, 발전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가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해피선샤인 캠페인의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한화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월 중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 후 9월부터 순차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존 3~18kWh의 용량이 큰 태양광 발전설비 외에 250W~1kWh의 미니 태양광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효성, 장애児 의료재활 8000만원 지원

푸르메재단에 기금 전달

효성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에서 의료재활 전문기관인 푸르메재단에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재활·가족 지원기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

효성이 푸르메재단과 의료재활 지원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부터 올해로 3년째다.

의료재활 지원금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장애어린이·청소년들에게 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치료 기회를 제공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은 "효성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장애어린이·청소년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왼쪽)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 24일 저소득층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재활과 가족 지원기금 전달식 행사를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이번 지원은 장애어린이 치료비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의 교육비도 지원해 가족 내 상대적 소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오는 10월에 효성 임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여행도 지원해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제주항공, 모든 승객에 손소독제 제공

기내반입용 200만개 특별제작

제주항공은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객 전원에게 특별 제작한 손 전용 소독제를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중공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기내 안전과 위생을 위해 모든 노선의 탑승객에게 손 세척과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손 전용 소독제를 만들었다.

1.5㎖ 용량의 손 소독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사멸에 가장 효과적인 비율로 에탄올을 62% 배합했다. 자연발화점이 300도 이상인 성분을 사용하는 등 액체와 젤류의 기내반입 규정을 적용해 총 200만개를 제작했다.

제주항공은 사내 메르스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내 소독주기를 주1회 이상으로 늘렸다.

탑승객들에게는 기내방송을 통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검역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4일 제주항공이 특별제작한 손 소독제를 승무원들이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양소리기자 10sound@

메르스에 혈액수급 비상
아시아나 임직원 팔 걷어

아시아나항공은 23~2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나아나타운과 김포공항 일대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아시아나와 대한적십자사는 메르스 전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헌혈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사와 문진·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메르스의 여파로 헌혈이 줄고 예정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혈액수급에 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실시돼 더욱 의미 있었다고 사측은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2004년 처음 헌혈행사를 시작한 이후 12년째 지속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교육 프로그램에 단체헌혈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김석제 아시아나항공 사회공헌팀장은 "앞으로도 임직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힘+승차감+스피드… 드라이빙 쾌감 극대화

|시승기| BMW '뉴 X6'

6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 258마력에 제로백 5.2초 넓은 적재공간의 '캠핑카'

BMW의 X6의 2세대 모델, '뉴 X6'는 동물의 제왕 사자 같은 큰 덩치지만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쿠페가 결합된 특유의 곡선이 날렵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X6는 SAC(Sport Activity Coupe)로 불리며 루프에서 테일까지 쿠페 스타일의 라인으로 기존 SUV와 차별된 모습이다. 날렵하게 이어진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과 헤드램프는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25만대의 판매를 올리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BMW의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다.

뉴 X6는 SUV의 힘과 쿠페의 스피드를 두루 갖췄다. 최근 시승한 '뉴 X6 xDrive30d'의 엔진은 3.0ℓ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됐다. 엔진의 최고출력은 258마력, 최대토크는 57.1kg·m로 넘치는 힘이 운전을 즐겁게 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면 도달한다. 특히 8단 스텝트로닉 스포트 트랜스미션이 장착돼 이전 모델에 비해 연비가 22%향상됐다. 복합연비는 12.3km/ℓ까지 개선됐다. 사자 같은 덩치지만 연비는 웬만한 중형 세단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췄다.

서울을 출발해 경북 김천까지 경부고속도 왕복 500km를 달려봤다.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는 순간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시트에 밀착됐다. 속도계는 시속 100km를 훌쩍 넘어섰다. 스포츠쿠페에서 느낄 수 있는 스피드의 짜릿함을 뉴 X6 30d를 타고 느낄 수 있었다.

세단보다 높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세단의 승차감이 느껴질 정도다. 특히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운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다 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을 미처 알지 못하고 밟고 넘어갔지만 별다른 흔들림을 느낄 수 없었다.

뉴 X6는 앞·뒤 구동력 분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 'xDrive'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주행속도, 바퀴 회전속도, 조향각도, 가속페달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전·후륜의 구동력을 최적 환경에 맞게 조정한다. 역동적인 성능과 함께 날렵한 쿠페에서 나오는 스피드는 운전하는 내내 쾌감을 갖게 했다.





▲BMW 뉴 X6 실내.
◀BMW 뉴 X6.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가족 차량으로도 제격이다. 적재공간이 넓어 많은 짐을 싣고 캠핑을 즐긴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접이식 뒷좌석을 이용하면 최대 1525ℓ까지 짐을 실을 수 있다.

3일간 500km를 주행한 결과 연비는 13.2km/ℓ로 공인 복합연비와 비슷했다. 이 차의 공인복합연비는 12.3km/ℓ(도심 11.1km/ℓ, 고속 14.3km/ℓ)다.

뉴 X6는 차체에 초고장력 강판과 사이드 패널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보닛에 알루미늄,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마그네슘을 적용해 무게도 기존 모델보다 40kg나 줄었다. 가격은 △X6 xDrive30d 9990만원 △뉴 X6 xDrive40d 1억1690만원 △뉴 X6 M 50d 1억4300만원이다(VAT 포함).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 차량 전달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車 필요한 서민창업자 어디 없소"

현대車 '기프트카 캠페인' 9월부터 7개월간 40명 선발 포터·봉고 등 보험료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6'의 서민창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에 사용된 차량 10대를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

기프트카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면 참가자는 현대차 포터·스타렉스와 기아자동차 봉고·레이 등 창업계획에 적합한 차량과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세금과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현대차는 지원대상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창업자금, 마케팅지원, 창업교육, 맞춤컨설팅,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연계한 창업자금 저리 대출 등을 제공한다.

기프트카 캠페인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 시즌6을 포함해 총 216대의 차량을 사회 곳곳에 전달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시즌6는 다음해 1월까지 접수를 받는다.

오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7개월간 매월 5~7명을 선발해 총 40명의 서민창업 희망자에게 기프트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 시즌6 전용 사이트에서 지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주인공들의 사연과 창업과정은 기프트카 캠페인 사이트에 소개된다.

누리꾼은 댓글 등록과 이벤트 참여를 통해 주인공을 응원할 수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국민연금, SK C&C-SK 합병 '반대표' 던진다

의결권행사전문委 합병비율 문제 지적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 등을 문제삼아 SK C&C와 SK의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고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양측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SK C&C와 SK는 지난 4월 1대 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높은 SK C&C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합병 후 SK C&C의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상향 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분 구조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반대해도 실제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SK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지분은 7%대에 그치고 있고 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31.87%에 달한다. SK C&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43.45%로 훨씬 높다. /정문경기자 hm0108@

기아차 '2016 쏘울' 판매 개시

판매가 1600만~2275만원 7단DCT 탑재 연비 향상

기아자동차는 '2016 쏘울'(사진) 차량 판매를 25일 시작한다.

기아차에 따르면 2016 쏘울은 7단DCT(더블클러치트랜스미션)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고, 루프랙 등 아웃도어 아이템과 고객 선호사양을 확대 적용했다.

7단DCT가 탑재된 1.6 디젤 모델은 기존(14.1km/ℓ) 대비 12.0% 향상된 15.8km/ℓ의 복합연비(16인치 타이어 기준)를 보인다.

2016 쏘울의 판매가격은 1.6 가솔린 모델이 ▲럭셔리 1600만원 ▲트렌디 1725만원 ▲프레스티지 1850만원 ▲노블레스 2075만원이다.



1.6 디젤 모델은 ▲프레스티지 2075만원 ▲노블레스 218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2275만원이다. /이정필기자 roman@

만도, 車부품 R&D 강화 독일서 전문인력 영입

만도가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인력을 영입했다.

만도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ZF-TRW에서 미래 제동시스템 개발을 총괄했던 요제프 크네츠게스(사진)를 유럽법인 기술총괄전무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크네츠게스 전무는 TRW에서 지난 20여 년간 자동차 제동시스템 연구개발에 매진한 전문가다.

그는 "TRW에서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을 총괄했던 경험을 토대로 만도의 제동시스템 기술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이정필기자



Upgrade the quality of your life!
Baumgarten
모델 하우스 OPEN
일부 타입 마감
특별한 삶이 완성되는 주거명작
고품격 타운하우스 – 바움가르텐
책임준공
광교산의 대자연과 도심의 생활을 함께 누리는 동천동 타운하우스
천혜의 자연 : 아름다운 광교산과 단지가 직접 산책로로 연결된 쾌적한 생활
쾌적한 교통 : 강남 20분, 분당 10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 : 분당서울대병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이마트 등 문화 편의시설
뛰어난 교육 : 동천초, 한빛초, 수지중, 한빛중, 수지고, 낙생고 등 뛰어난 학군 구성
분양문의 031.262-5445
분양문의 031.262-8840
■시행 : (주)한양컨설팅 ■시공 : 청정종합건영(주)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SKT, 데이터요금제 한 달만에 200만명 돌파

KT 91만명·LG U+ 70만명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한지 한달 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모집에서 기선을 제압한 모습이다.

24일 SK텔레콤과 KT·LG U+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에 출시한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한 달여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날 기준으로 KT가 91만명, LG유플러스가 70만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각각 약 2.2배, 3배 많은 수치다.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달 20일 출시 첫 날 15만명을 기록했고 2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존 요금제 가운데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2013년의 'T끼리 요금제'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가 2배 빠르다.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혜택을 받았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80만명의 이달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T끼리 요금제' 가입자에 비해 628TB 상당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인당 약 800MB의 데이터를 더 쓴 것이다. 800MB는 고화질 IPTV를 1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들이 1인당 평균 3.2GB의 데이터를 리필하고, 1.8GB의 데이터를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이달 17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5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달 요금제 출시 초반의 인기몰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100만명을 기록한 가입자 수는 이달 3일 2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5700여만명에 달해 가입자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리필하기', KT는 '밀당', LG유플러스는 동영상 시청 특화 요금제 등을 각각 자사 요금제의 특징으로 강조한다. 이런 서비스 덕에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 혜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수가 늘면서 데이터 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향후 회사들은 데이터 요금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전자 홍보모델이 스마트폰 LG 밴드 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카메라·사운드 강화 스마트폰 출시

LG전자 'LG 밴드 플레이' 국내 실속파 소비자 공략

LG전자가 카메라와 사운드를 강화한 30만원대 가격의 스마트폰 'LG 밴드 플레이'를 SK텔레콤 전용으로 25일 출시한다.

이 제품은 '레이저 오토 포커스' 기능을 적용한 고성능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셀피(스스로 찍은 사진) 촬영을 위한 전면 5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G 시리즈'의 대표 카메라 UX인 '제스처 샷'과 '제스처 뷰' 기능도 지원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4'에 인박스 형태로 제공되는 '쿼드비트3' 이어폰을 'LG 밴드 플레이'에도 제공한다. 쿼드비트3 이어폰은 LG전자가 자체 설계한 '쿼드 레이어 진동판'을 적용해 고가의 이어폰 못지않은 음질을 제공한다. 여기에 1와트(W) 고출력 스피커를 탑재해 보다 풍부하고 명료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LG 밴드 플레이는 시험을 앞둔 중고생은 물론, 집중력을 요하는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의 전화나 알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모드'를 탑재했다. '집중모드'를 실행하면 데이터 통신과 와이파이(Wi-Fi)가 차단되고,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수신거절 메시지가 발송된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은 "국내의 실속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의 카메라와 'G 시리즈'의 프리미엄 UX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기자 hjc@

SKT "통신 품질 유지, 무선전송 장비 개발"

'스마트 빔포밍' 적용… 도서·산악지역 개선 기대

SK텔레콤이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의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통신기술인 '스마트 빔포밍'을 적용한 스마트 무선전송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장비는 전파 전달 시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속도가 저하되는 기존 장비와 달리 전파의 전달 경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달 경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신기술인 스마트 빔포밍을 적용해 통신품질을 최대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 빔포밍은 전파를 집중해 보내는 게 가능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인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

SK텔레콤은 스마트 무선전송 장비 덕분에 지형적인 문제로 유선으로 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산악, 도서 지역, 해수욕장이나 스키장 등의 통화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이 장비를 이달 말 부산 해운대에 시범 적용하고, 추후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장비 최적화를 거쳐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 무선전송 장비는 기가 와이파이 기반으로 만들어져 최대 1.3Gbps의 속도를 낸다. 설치가 간단해 유선망에 문제가 생긴 재난지역이나 비상상황 발생 지역 등 임시 전송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해야 하는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선전송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삼성전자 '광주 하계 U대회' 대형 옥외광고 설치

삼성전자가 다음달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을 앞두고 옥외광고를 설치해 광주를 찾은 전 세계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환영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전자 부문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는 광주 송정역 KTX 역사와 외부 광장을 비롯한 광주 시내 곳곳과,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인천공항역 등 주요 수송 거점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광고판에 유니버시아드 캠페인 테마인 '서로를 빛나게 (You Light Me Up)'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대회 참가 선수단 등에 에어컨·냉장고·PC·TV·휴대전화 등 총 8종 9000여대의 전자제품을 지원한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전남·북 지역 일대에서 치러진다. 전 세계 170개국 2만여 명 규모의 대학생 선수단이 총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양성운기자 ysw@

KT "국제전화 001 누르면 경품이 와르르"

KT(회장 황창규)가 올 여름 국제전화 '001' 이용 고객에게 아이스크림, 공연초대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국제전화 001 쿨 서머 페스티벌'을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24일 KT에 따르면 국제전화 001은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의 정답자 중 1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쿼터를, 300명에게 싱글콘을 추첨 제공한다. 또 다음달 14일까지 국제전화001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적은 30명에게 싱글콘을 준다. 이외에도 다음달 25일 개최되는 YB와 뜨거운감자의 연합콘서트 JTN 라이브 콘서트에 고객들을 초청한다.

이벤트 참여와 자세한 이벤트 설명은 올레닷컴(www.olleh.com), 국번없이 100번(휴대폰 : 지역번호+100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해외브랜드, 한국 고객은 여전히 '호갱님'

이케아·자라 판매가격, 美·獨·日 보다 비싸
타 국가 대비 임금은 절반, 상품가격은 두배

국내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들이 타 국가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팔며 국내 소비자들을 일명 '호갱(호구 고객)'으로 삼고 있다.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케아 코리아(대표 안드레슈미트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파·수납장의 가격이 미국·독일·일본 판매가보다 높다는 것이다. 국내 평균가격은 52만2717원으로 타 국가보다 15~20% 높게 나타났다. 당시 이케아 측은 국가에 따라 다른 시장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스페인 언론 엘 콘피덴시알은 스페인 제조·유통일괄형(SPA) 의류브랜드 자라(ZARA)가 인터넷 사이트 14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7000개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스페인의 2배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자라 제품은 스페인보다 50%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인도·일본·러시아·중국·미국 5개국 가운데서도 96%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조사는 올해 4월 모건스탠리가 시장조사업체 알파와이즈에 의뢰한 것이다.



/연합뉴스

각 국가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독일·일본·미국에 비해 물건을 비싸게 사고 있다.

OECD가 분석한 한국의 평균임금은 2013년 기준 3만99달러이다. 미국은 5만5708 달러, 독일 4만6960 달러, 일본은 4만793 달러 등이다.

최저임금 역시 4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현재 워싱턴 주는 9.47달러(한화 약1만5050원)이고 LA의 경우는 7.25달러(한화 약 8039원)이다. 일본은 전국 평균 780엔(한화 약 7200원), 독일은 8.5유로(한화 약 1만534원)이다.

한국 소비자를 '호갱'으로 삼는 해외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소비자는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한다고 하니 화가난다"며 "국내 소비자는 호갱으로 보는 기업을 향해 정부가 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 결국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나 이케아는 지난 3월 20일 개장 100일 만에 누적방문객 220만을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그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 상태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현대百, 강남권 면세점 입지 탁월"

외국인 관광객 급증 지역
신영증권, 매수의견 유지

신영증권은 24일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전에 참여한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에 대해 "강남권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상황임에도 면세점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무역센터점이 입지 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권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상황임에도 면세점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역시 심사 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며 "더욱이 강남은 한류 관광, 의료 관광 수요 측면에서도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선정 가능성을 제외해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매수 의견(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선택한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특허를 받게되면 강남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인근 롯데월드면세점에 이은 3번째 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코엑스에 따르면 코엑스 단지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약 180만명에서 2018년 300만명으로 120만명(66.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구 전체로는 같은 기간 600만명에서 1000만명까지 400만명(66.67%)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대기업중 유일하게 중소·중견기업을 주주사로 참여시켰다. 면세점 합작법인 ㈜현대DF는 현대백화점이 50%,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출자한 한무쇼핑이 20%, 모두투어네트워크가 1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13%는 엔타스듀티프리, 서한사, 현대아산, 제이엔지코리아, 에스제이듀코가 나눠 갖는다.

현대백화점은 주주사인 모두투어, 앰배서더호텔(서한사)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호텔, 면세점 중심의 여행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모두투어 등 주주사 현지법인을 활용해 국내 관광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모집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현대홈쇼핑 중국(상하이) 법인과 제휴를 통한 관광상품도 개발·판매할 예정이다.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국산화장품 매장인 '케이뷰티'를 비롯해 패션잡화매장인 '케이패션', 지역특산물 매장인 '케이푸드'로 구성된 테마별 한류 스타일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엔타스듀티프리와 현대아산 등 기존 면세점을 운영 중인 합작법인 주주사의 면세점 화물 관리역량을 결합한 운영 프로세스를 준비 중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티몬 마트' 오픈 기념 쿠폰 할인 행사 티몬(대표 신현성)이 모바일 전용 생필품 판매 채널 '티몬마트' 오픈을 기념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티몬마트는 생필품 500개 브랜드, 3000여종을 온라인 최저가 보다 최대 10% 싸게 판매한다. 또 모든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3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이 할인되는 쿠폰을 매일 밤 자정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티몬 제공

"세탁기 구입하고 나눔활동 동참하세요"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는 내달 15일까지 전국 438개 하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LG전자 일반식 전자동 세탁기(일명 통돌이 세탁기) 판매액의 일부를 적립해 소외계층을 후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상품을 선정해 고객과 함께 나눔활동을 진행하는 사랑의 기부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사랑의 기부 이벤트로 마련한 기부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롯데홈쇼핑 제재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롯데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했다. 또 해당 제품들은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마트, 베트남기업 한국 수출판로 지원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한국-베트남 수교 23주년을 맞아 베트남 우수 기업들의 한국 수출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베트남 상공부와 손잡고 24일부터 28일까지 롯데마트 베트남 남사이공점에서 '베트남 우수 상품점'을 진행한다. 이번 상품전에는 100여 개의 베트남 업체가 참여해 3500개의 상품을 소개하는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다.

품평회에서는 가공식품·생활용품 품목들이 다양하게 선보여질 예정이며 27일·28일 이틀 간은 롯데마트의 국내 MD(상품기획자)가 직접 방문해 우수 상품 발굴을 위한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품평회를 토대로 10월 롯데마트 국내 주요 점포에서 '베트남 상품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minus@



미니선풍기 최대 20% 할인 판매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내달 15일 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탁상용 미니선풍기를 최대 20%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는 마블 캐릭터가 들어간 '어벤져스 캐릭터 선풍기'를 목걸이형 9900원, 탁상용 3만5000원, 미니서큘레이터 27900원 등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최대 50% 할인 '마스크 시트 페스티벌'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은 24일부터 8일간 마스크 시트를 최대 50% 할인하는 '마스크 시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70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시한다.

할인 기간 극세사와 하이드로겔, 목화 솜털을 사용한 장섬유까지 시트 소재별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알로에·녹차·쉐어버터 등 자연 성분이 주는 효능과 피부 고민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좋다.

쫀득쫀득 씹히는 아이스크림 '말랑카우'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는 캔디에 이어 아이스크림도 말랑카우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쫀득쫀득 말랑카우바는 우유 맛이 좋고, 씹는 느낌이 쫀득 쫀득한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기에 좋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말랑카우 캔디가 구워 먹는 캔디라는 역발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씹어 먹기 좋은 말랑카우바도 색다른 느낌으로 화제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맛도 모양도 변신… 새로운 '미니쉘'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는 미니쉘의 맛과 패키지 디자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쉘은 딸기요거트·아몬드리치·카페모카·밀크시리얼 등 4종이다.

딸기요거트는 상큼한 딸기에 요거트를 더해 상큼한 맛을 강조했고, 아몬드리치는 럼을 가미했다. 밀크시리얼은 라이스 크런치의 바삭바삭한 식감은 물론, 시리얼과 고소한 우유 맛이 특징이다.

'커버 파우더 쿠션 복숭아꽃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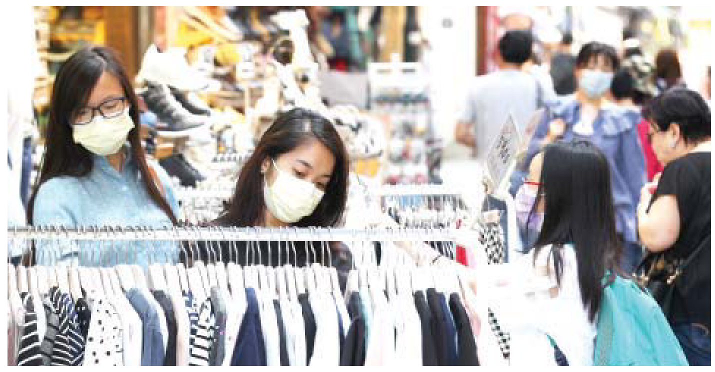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마몽드가 '커버 파우더 쿠션 복숭아꽃 에디션'을 24일 출시했다.

마몽드 '커버 파우더 쿠션'은 화사한 피부 표현과 보송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브랜드 모델 박신혜의 화사한 반사광 피부를 연출해주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캠핑·아웃도어 '울상'

메르스 여파로 소비 위축
성수기 앞두고 판매 저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가 지속되며 아웃도어·캠핑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온라인 몰에서는 캠핑 관련 용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24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5월 23일~6월 22일) 간 텐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5% 성장했다. 이 기간 파라솔(-7%), 의자(-18%), 코펠·식기도구(-21%) 등은 전년보다 판매가 줄었다.

G마켓에서도 같은 기간 캠핑 식기와 텐트·타프용 소품이 각각 4%, 7% 판매가 감소했다. 텐트는 8% 상승에 그쳤다.

캠핑은 극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앞두고 구매를 시작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판매가 신통치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던게 아니었다"며 "올해는 기대를 했지만 메르스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업계 역시 여름철 비수기 돌파구 차원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해 왔지만 관련 마케팅 활동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블랙야크는 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돼 있던 '희망나눔 캠프'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해오던 블랙야크의 대표 캠핑 행사다. 올해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50가족을 초청해 진행하려 했지만 메르스 우려로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격을 안받을 수는 없다"며 "그래도 휴가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 있어 래쉬가드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구상하는 한편 시즌성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컬럼비아는 장마철을 앞두고 레인코트를 출시했다. 밀레는 7월 26일까지 2015년 봄·여름 시즌 신상품을 30% 할인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짜왕' 5월 라면시장 2위 등극

농심 1~5위 휩쓸어



농심(대표 박준) 짜왕이 출시 한 달 만에 라면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24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라면시장에서 짜왕은 신라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안성탕면·짜파게티·얼큰한 너구리가 각각 3·4·5위로 농심이 라면시장 1~5위를 모두 휩쓸었다.

짜왕의 인기에 농심의 시장 점유율도 0.6%p 상승해 61.5%를 기록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의 점유율은 각각 1.1%p, 0.6%p 하락해 16.7%, 11.3%를 기록했다. 초여름 비빔면의 인기로 팔도의 점유율은 1.1%p 올라 10.5%였다.

농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닐슨코리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 짜왕은 압도적인 인기로 라면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달 초 밝힌 짜왕 1000억 클럽 입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4월 출시된 짜왕은 풍미가 깊고 진한 정통 짜장 맛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면발은 너구리의 1.5배에 이르는 3㎜의 굵기에 국산 다시마 분말을 추가해 탱탱하고 쫄깃함을 구현했다.

스프는 200℃ 이상 고온 에서 단시간에 재료를 볶는 고온쿠커로 갓 볶은 수제 간짜장 맛을 담았다. 짜장 진액을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저온에서 건조하는 '지오드레이션' 기술을 사용해 열로 인한 맛의 손실을 막았다. 야채풍미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농심의 50년 라면 노하우가 총동원됐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식음료업계에 부는 상큼한 바람… 과일 품은 제품 인기

맛·건강 잡는 트렌드 확산

식음료업계가 과일의 맛과 향을 살린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오리온의 기능성 캔디 '닥터유 민티'는 복숭아 맛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민티의 시원한 청량감이 복숭아의 상큼한 향과 어우러져 여름철 2030여성들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폐와 기관지 강화에 좋은 도라지를 첨가했다.

오리온 '젤리데이'도 복숭아·레몬·포도 등 다양한 과일 맛으로 여성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과육을 씹는 듯한 식감을 가진 젤리데이는 49g 한 봉지로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을 100% 섭취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여름철 디저트 시장을 겨냥해 과일을 담은 여름 전용 푸딩 '썸머멜로우'를 내놓았다. 쁘띠첼 스윗푸딩 썸머멜로우는 푸딩 본연의 부드러운 식감에 열대과일의 상큼한 맛을 한껏 살린 제품이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최근 선보인 '알폰소 망고'는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에 향과 과육이 풍부해 알폰소 망고를 넣어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 제품의 맛뿐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며 "과일, 야채 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활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의협·의학회, 공중보건 위기대응 토론회

‘메르스 해법 찾기’ 머리 맞댄다

메르스 사태가 한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정부방역에 헛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부분폐쇄도 무기한 연장됐다.

이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에 감염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공동으로 이에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양대 축인 의협과 의학회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측면에서 메르스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협회 3층 회의실에서 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개선
위기관리 소통체계 구축 등
4가지 소주제 발표·토론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내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는 사스와 신종플루 등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는 부실한 현 공중보건에 던져진 경고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흘린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될 것이므로 하루 속히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 토론회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 공중보건에 던지는 교훈을 얻고자 기획됐다.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 ▲ 병원감염관리체계 개선 ▲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의료체계 ▲ 공중보건위험 위기관리소통체계 구축 등 4개 소주제에서 9명의 전문가 패널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인 의협·의학회는 “메르스 사태의 본질은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합작품”이라고 진단하고 며 “향후부실한 국가방역체계를 재구축하고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는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치선기자

요통 치료 첫걸음 ‘바른 생활습관’

2030 사무직 환자 급증 추세
잘못된 자세 장시간 근무 원인

요통은 성인들이 흔히 겪는 만성 질환중 하나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건강계측·평가연구소(Institute of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내 국제연구컨소시엄이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총 301개 질환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은 ‘요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근육통부터 심하게는 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요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엉덩이와 허벅


용인분당예스병원 이한일 원장이 진료하고 있다.

지가 당기는 증상이 동반되고 심한 통증을 겪기도 한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에서도 요통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 늘어나면서 허리에 부담이 집중돼 허리 통증·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척추와 관절 통증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이한일 원장은 “잘못된 자세는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심해지면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성요통의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허리 근육이 굳고 염증이 생긴다. 이를 방치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인대가 늘어나거나 딱딱해져 허리에 중심인 척추를 지탱하지 못하게 돼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원장은 “급성 요통의 경우 대개 2~3일 정도의 안정 기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일주일 안에 전문의와 상담해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치선기자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리디자인’ 전시·공모전

그룹와이, 태극기에 디자인 입히다

아티스트 70명 참여
8월 8일부터 2주간
서울·뉴욕 동시 열려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대표 편석훈)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리디자인’ 전시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8월 한 달 간 ‘코리아 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광복절 기념 행사를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행사인 ‘기리다, 그리다’ 전(展)은 8월 8일부터 2주간 뉴욕과 서울에서 동시 진행된다. 뉴욕에 활동하는 한인 아티스트 35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35명, 총 70명이 참여해 태극기 리디자인 작품을 내놓는다.

그룹와이는 전시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태극기 응용 공모전’을 실시한다.

7월 한달 간 작품 접수를 받고 8월 초부터는 접수받은 작품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룹와이는 이와 관련 후원·협찬을 할 기관·기업을 찾고 있다.

편석훈 대표는 “전시회와 공모전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태극기를 패턴화한 디자인 제품을 지속적



으로 생산·확산시켜 생활 속 애국심과 광복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한다”며 “이 프로젝트를 매년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자 한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월드 베스트’ 먹고 카메라 받자

크리스피크림 도넛
신제품 출시기념 경품행사

크리스피 크림 도넛(대표 노일식)은 ‘월드 베스트 도넛’ 2차 신제품 2종을 출시 기념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월드 베스트 도넛과 함께 재미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1등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2등 샘소나이트 캐리어, 3등 크리스피 크림 도넛 모바일 금액권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1차가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2차는 7월30일부터 8월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월드 베스트 도넛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 공식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7일부터 6월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1차 3종이 이달 15일 출시됐다. 2차 신제품으로는 일본 제품 ‘그린티 케익’, 영국의 ‘스트로베리 글로스’를 선보였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주말엔 뉴욕스타일 브런치 드세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더 그리핀, 27일부터 제공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루프톱 바 ‘더 그리핀’은 27일부터 주말·공휴일마다 뉴욕 스타일의 브런치 세트를 출시한다.

브런치 세트 메뉴는 구운 잉글리시 머핀과 햄 위에 데친 달걀을 올리고 홀랜다이즈 소스가 들어간 에그 베네딕트, 홈메이드 소시지, 속을 채운 감자, 프로방스식 토마토, 속을 채운 버섯이 메인 요리로 제공된다.

또한 세라노 햄과 멜론, 셰프의 추천 수프, 홈 메이드 시그니처 페이스트리 테이블, 커피 또는 디카인(1잔)이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무제한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추가했다.



더 그리핀 바 담당자는 “이른 점심시간에 먹는 가벼운 식사를 뜻하는 브런치는 이미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식문화가 됐다”며 “JW 메리어트 동대문의 최고층에 위치한 루프톱 바에서 전경을 감상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느긋한 여유를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격은 4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며 오후 12시부터 2시30분까지 한정으로 즐길 수 있다. 예약·문의 02-2276-3000 /정은미기자 21cindiun@

‘굿스테이’ 함께 할 숙박업소 모여라

한국관광공사
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7월 19일까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브랜드 ‘굿스테이’ 신규 업소 신청을 받는다. 굿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6월 현재 전국 564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체는 굿스테이 브랜드 로고 사용, 운영자와 종사원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시설 개보수 자금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향후 2년 동안 지정 자격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갱신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관광공사 박석주 관광숙박개선팀장은 “중저가 우수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시작한 굿스테이 사업



강원도 정선의 굿스테이 지정 호텔.
/한국관광공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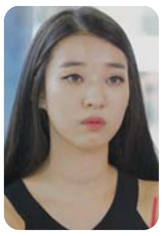
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믿을만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관광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2015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굿스테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5년도 상반기에 전국 66개의 신규 업소를 지정했다.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굿스테이 홈페이지(www.goodstay.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통해 9월경 예정이다. /최치선기자

star bag

김수현·한예슬과 한솥밥



드라마 '프로듀사'로 얼굴을 알린 신인 배우 **김선아**가 김수현, 한예슬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24일 김선아와의 전속계약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아는 '프로듀사'에서 막내 작가 김다정 역으로 주목을 받았다.

4년 4개월 만에 신곡 발표



가수 **김현정**이 4년 4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 '어텐션(Attention)'의 티저 영상이 24일 자정에 공개됐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김현정과 한 남자의 자동차 추격전을 비롯해 김현정의 코믹한 연기를 담고 있다.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장르의 '어텐션'은 26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8월 앙코르 콘서트 개최

그룹 **신화**가 오는 8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17주년 기념 앙코르 콘서트 '2015 신화 17th 애니버서리 파이널 콘서트-위 신화(WE_SHINHWA)'를 개최한다. 신화컴퍼니 측은 "이번 공연을 통해 팬과 소통하며 12집 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룡이나르샤' 합류



배우 **박혁권**이 SBS 새 월화극 '육룡이나르샤'에 캐스팅됐다고 소속사 가족액터스가 24일 밝혔다. '육룡이나르샤'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철혈군주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여섯 인물의 야망과 성공스토리를 다룬 팩션 사극이다. 박혁권은 현 삼한 제일검으로 손꼽히는 길태미 역을 맡았다. 10월 첫 방송.



"첫 뮤지컬 나들이 재미있고 설레요"

뮤지컬 '아리랑' 이소연

국립창극단 대표 배우 이소연(31)이 '아리랑'을 통해 뮤지컬 데뷔 무대를 갖는다. 뮤지컬 '아리랑'은 조정래의 대하소설이 원작이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담았다. 제작사 신시컴퍼니가 2007년 '댄싱 섀도우' 이후 8년의 공백을 깨고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공연돼 더욱 의미가 크다.

이소연은 소설 속 배경인 전북 김제 죽산면의 중요 인물 중 차옥비 역을 맡았다. 판소리를 하는 여인 옥비는 굴곡진 인생을 사는 인물이다. 아버지는 토지조사 과정에서 실수로 지주를 죽인 죄로 총살당하고, 그 충격으로 실성한 어머니 역시 자살한다. 오빠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유린한 백남일의 눈을 실명시켜 옥살이를 한다. 옥비는 오빠를 풀어주겠다는 일본 경찰국장 고마다의 협박에 그의 첩이 된다. 그러면서도 절개 있는 양반 송수익을 흠모한다.

우리 소리를 할 줄 아는 예인으로, 고운 선을 지닌 얼굴이지만 강인함이 묻어있다. 창극을 통해 오랜 기간 연기를 해온 소리꾼 이소연이야 말로 옥비 역에 제격이다.

"뮤지컬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시대극이라 낯설지가 않았고, 현대적인 곡도 있었지만 전 대부분 판소리를 하면 되니 어렵지 않았어요. 창극을 하면서 연기도 해왔고요."

연출가 고선웅은 이소연에게 옥비는 한이 있고 슬픔을 간직한 인물이지만 슬프게 그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슬프지만 슬프지 않게 연기하라니 난감했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줄 알았죠. 우리 판소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는 우리 정서인 한을 담은 음악이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희로애락이 있죠. 아리랑도 그렇고 옥비 역시 사랑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인물인거죠."

이소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다. 판소리 대가 송순섭·안숙선을 사사했다. 2010년부터 국립창극단의 객원멤버로 활동하면서 2013년 정식 단원이 됐다. 그동안 '코카서스의 백묵원'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숙영낭자전' '서편제배비장전' '청' '춘향' 등 수많은 창극 무대에 섰다.

"아버지가 판소리를 좋아하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에 이끌려 판소리를 배우러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판소리가 재미없고 싫었어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보고 목청이 좋다고 하시면서 늘 칭찬해 주셨어요. 결국 국악대학을 다니게 됐고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 미모 갖춘 국립창극단 대표 배우
> 판소리하는 여인 차옥비 역 맡아
> '슬픈데 슬프지 않게 연기' 어려워
> 걱정했지만 시대극이라 익숙해져

좋은 체구에 미모까지 겸비한 그는 국립창극단 내에서도 쉽게 주목을 받았다.

"김성녀 선생님도 계시지만 창극하는 사람이 뮤지컬 무대에 선다는 책임감도 느껴져요. 뮤지컬과 창극은 소리를 내지르는 발성법만 다를 뿐이지 연기하고 노래하는 모든 구성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창극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질 않죠. 관객이 넘쳐나는 뮤지컬이 부러워요. 우리 고유의 뮤지컬인 창극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여에 걸쳐 기획·제작된 뮤지컬 '아리랑'은 12권의 소설 속 아픔의 역사를 감골댁 가족사 중심으로 재편했다. 환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를 포함한 50여 곡이 19인조 오케스트라 선율로 펼쳐진다. 안재욱·서범석·김우형·카이·윤공주·임혜영·김성녀 등이 출연한다. 7월16일~9월5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김정은, 펀드 매니저와 열애

조심스런 만남… 결혼은 아직



배우 김정은(사진)이 열애 중이다.

여성 매거진 우먼센스는 24일 "김정은이 재벌가 자제와 열애 중이며 결혼까지 임박했다"고 측근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에 김정은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은 현재 조금씩 상대방을 알아가며 좋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지금은 드라마 촬영에 한창으로 오로지 연기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인의 개인사로 인해 드라마 팀이 신경 쓰는일이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배우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정은 측은 "앞으로에 대한 기약은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혼이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은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오해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의 열애 상대도 우먼센스 보도처럼 재벌 2세가 아닌 해외 증권사 펀드 매니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호기자 solanin@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돈·권력 향한 임상수 감독의 하이킥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나의 절친 악당들

'쿨한' 청춘들의 이야기 현실적 공감대는 부족





지누(류승범)는 인턴 직원이다. "취직해서 월급쟁이가 돼 '따까리'로 사는 건 X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정규직이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다. 나미(고준희)는 맨발로 렉카차를 운전하는 거친 여자다. 가진 것 하나 없다는 점에서 나미와 지누는 닮았다.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은 이들에게 권력가의 검은 돈가방이 굴러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상수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불편함이 들었다. 그가 영화를 통해 그려낸 세상은 너무 위악적이었다. 상류층을 향한 풍자를 담은 '하녀'와 '돈의 맛'이 통쾌함보다 씁쓸함으로 기억에 남았던 이유다.

'나의 절친 악당들'에서 임상수 감독은 영화 초반 돈가방을 배달하는 운전부로 출연한다. 등장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역할이다. 영화에 작은 재미를 더하는 카메오 출연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전 영화와는 다른 영화를 만들겠다는 임상수 감독의 선언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나의 절친 악당들'은 임상수 감독의 전작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불편함이 덜하다. 세상에 대한 위악적인 묘사는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한결 힘을 뺀 캐릭터들이 눈에 띈다. 세상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에 충실한 지누와 나미의 모습은 '쿨함' 그 자체다.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그럼에도 유쾌한 청춘의 모습이 두 캐릭터 속에 녹아 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힘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임상수 감독의 말처럼 '나의 절친 악당들'이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재벌을 위시한 상류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담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서 현실적인 공감대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돈가방을 둘러싼 지누와 나미, 그리고 회장(김주혁) 사이의 갈등과 대결에서도 계급투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영화적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영화 후반부의 복수극이 생각만큼 짜릿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뜬금없는 엔딩도 키치적으로 느껴진다. 물론 그런 점들이 영화를 더욱 '임상수 감독스럽게'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6월 25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실리콘 밸리 입사시험 도전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오후 11시



승승장구하는 이장원을 막기 위해 그의 절친 신재평이 찾아왔다. 오직 시청자가 제보한 문제만으로 구성된 뇌풀기 문제에서 신재평은 정답 기계처럼 이장원을 제치고 독주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문제풀이에서는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 연봉 TOP 기업 입사시험에 도전한다. 공대생도 당황하게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계산문제에 공대 출신인 하석진과 이장원이 도전장을 내민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JTBC '님과함께 시즌2'

오후 9시 40분

안문숙과 김범수 부부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다랭이 마을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그러나 데이트 도중 사소한 다툼이 벌어져 결혼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한다.



◆ 올리브TV '한식대첩3'

오후 9시 30분

정력 강화의 대명사 '복분자'를 주제로 요리 경합을 벌인다. 허셰프 최현석은 복분자 요리를 맛본 뒤 주체할 수 없는 힘을 절구질로 승화시킨다.



◆ tvN '성적욕망'

오후 8시 40분

잡아줄 사람 없는 '독학재수생'의 시급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수학 포기자'들의 공통점과 수학 강사들이 말하는 수학 공부 비법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9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6.25 기획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59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9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3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4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1회)	55 딱 너 같은 딸 (29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6.25 전쟁 특집 <역사채널e 스페셜>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6.25 전쟁 특집 역사채널e 스페셜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6.25 기획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2회)	00 맨도롱 또똣 (14회)	00 가면 (10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아폴로 13>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6.25 특집 다큐 국제시장 사람들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35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9회) (재)	30 다녀오겠습니다 (1회) (재)		00 <킹덤 오브 오션> 4부. 바다의 위대한 제국		◆ 프로야구 (18:30) SK vs 두산 (SPOTV+) KIA vs NC (MBC SPORTS+) 넥센 vs 한화 (SKY SPORTS) LG vs KT (SBS SPORTS) 삼성 vs 롯데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68·72·73회)	00 쇼킹 70억 (25회)	40 나도 영화감독이다 (2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성적욕망 (3회)	30 올리브쇼 2015 (22회)	00 티베트 천장 1부. 동자승, 천장을 만나다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8회)	40 한식대첩 3 (6회)	30 한식대첩 3 (6회)	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 4부. 코알라의 숲	00 나도 영화감독이다 (3회)	
22시				00 <예수가 선택한 제자, 12사도> 유다, 요한, 야고보	20 신들의 전쟁	
23시	00 썰전 (121회)	00 문제적 남자 (18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6회) 20 오늘 뭐 먹지? (74회)	00 배틀그라운드 브라더스 5부		
24시	20 5일간의 썸머 (6회)	20 집밥 백선생 (6회) (재)	00 한식대첩 3 (6회)	00 콜드 워터 골드 (5회)	20 소녀	

‘메이저 사냥꾼’ 박인비, 새 전설 쓴다



전체 승수 40%가 메이저대회
소렌스탐·웨브 뛰어 넘을 듯

세계랭킹 1위 '골프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사진)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카리 웨브(호주)의 메이저대회 우승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LPGA투어 상금 1위, 다승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인비는 15일 미국 뉴욕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 컨트리클럽(파73·6670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메이저대회 우승컵 6개째를 수집했다. 또한 이 대회 3연패를 달성하며 역대 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3연패를 달성한 세 번째 선수가 됐다. 이로써 메이저대회 우승컵 5개의 박세리(38·하나금융)를 넘어선 박인비는 조만간 소렌스탐과 웨브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인비의 '메이저 사냥꾼' 본능은 이미 현역 선수 가운데 최고다. 지금까지 LPGA투어에서 올린 15승 가운데 6승이 메이저 타이틀이다. 우승 트로피의 40%가 메이저 우승컵이다.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메이저 타이틀을 보유한 웨브는 41승 가운데 메이저 타이틀이 7개에 그친다. 줄리 잉스터는 31승 가운데 메이저대회에서 7승을 거뒀다.

은퇴한 선수를 포함해도 박인비의 메이저 비중은 대단히 높다. LPGA투어 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히는 소렌스탐은 LPGA투어 72승 가운데 10승만이 메이저 우승컵이다. 두 자릿수를 겨우 넘은 기록이다. 메이저 최다승 기록(15승) 보유자 패티 버그는 LPGA 투어에서 통산 60승을 올렸다. 25%가 메이저 우승이다.

27일 만 27세가 되는 박인비는 소렌스탐, 웨브보다 메이저대회 타이틀 수집 속도도 훨씬 빠르다. 소렌스탐은 27세 이전에 11승 중 메이저 우승이 2번 뿐이었다. 웨브는 27세가 되기 전에 이미 26차례 우승컵을 들었지만 메이저에서는 5승을 올렸다. 일찍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27살이 되기도 전에 24승을 쓸어담았지만 메이저 승수는 고작 2승이었다. 큰 대회에 강했던 박세리도 27살 때까지 메이저 4승을 올렸지만 박인비에 미치지 못했다.

박인비가 27세 생일을 지나서도 지금과 같은 기량을 유지한다면 메이저대회 10승 이상은 물론 최다승(15승)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홈런 도둑 맞은 이대호 ‘불만’

“왜 제2구장 비디오판독 하지않나”

오심으로 홈런을 도둑 맞은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사진)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대호는 23일 일본 사이타마현 오미야고엔 구장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와 퍼시픽리그 원정 경기에서 3회초 3루쪽 파울 폴을 맞는 커다란 타구를 쳤다. 타구는 높이 뜬 상태에서 파울 폴을 때리고 페어 지역으로 들어갔다. 중계화면 상으로도 파울 폴을 때린 것이 보였다. 폴을 맞으면 홈런이다. 그러나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다. 눈앞에서 홈런을 도둑 맞은 이대호는 다음 공에 유격수 뜬공을 치고 더그아웃으로 돌아가야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24일 "이대호가 23일 경기 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며 "타구가 페어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파울 판정이 나왔다. 구도 기미야쓰 소프트뱅크 감독이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대호는 "100% 타구가 페어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심판은 폴 바깥쪽에서 공이 휘어 들어가 스탠드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판정이 번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프로야구는 2010년부터 홈런 타구에 대한 비디오판독을 도입했지만 판독 시설을 갖춘 각 구단의 '제1구장'에서만 비디오판독을 한다. 이날 경기가 열린 오미야고엔 구장은 세이부의 제2구장이다. 세이부의 제1구장은 세이부돔이다.

이대호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비디오판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일본프로야구 최고 타자 경쟁을 펼치는 이대호에게 홈런 한 개는 무척 아쉬운 상황이다. 5월 퍼시픽리그 최우수타자로 뽑힌 이대호는 쾌조의 타격감을 이으며 6월 최우수타자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2달 연속 최우수타자에 도전하는 이대호로서는 이번 오심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하희철기자

광주U대회 ‘누리비’와 함께 즐겨요

풍물패와 길거리 홍보
대회개최 시너지 극대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가 길거리 홍보에 나선다. 풍물놀이와 누리비를 통한 집중 홍보를 통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대회 개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는 24일 풍물패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스코트 누리비의 홍보 활동을 7월 중순까지 남구 전역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대회 기간에는 주경기장 인근과 외부 행사장 등지에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 /연합뉴스

남구 관계자는 "풍물패의 사물놀이를 필두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 주인공들이 다중 집합장소와 경기장 주변 등지에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씩 총 6시간 가량 강행군하며 대회를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봉송길에 오른 성화는 16일째인 25일 전남 지역에 입성한다. 25일 경남 진주에서 하동을 거쳐 광양에 들어온 뒤 이날 순천시청에 안치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일본, 8강행… 호주와 맞대결

FIFA 여자월드컵

네덜란드에 2-1 승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16강전에서 지난 대회 챔피언 일본이 네덜란드에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일본은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사오리 아리요시와 미즈호 사카구치의 연속골로 네덜란드를 2-1로 제압했다. C조 조별리그(1위)에서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한 일본은 이로써 이번 대회 유일하게 4전 전승을 기록하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였다.



일본 여자 축구 대표팀. /AP=연합뉴스

일본은 A조 3위(1승1무1패)의 네덜란드를 맞아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였다. 18개의 슈팅을 날리며 경기를 주도했다.

선제골은 전반 10분에 터졌다. 일본 공격수 유키 오기미가 날린 슈팅이 네덜란드 골대를 맞고 나오자, 아리요시가 쇄도하며 이를 밀어 넣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일본은 후반 33분 아야 미야마의 도움을 받은 미즈호 사카구치가 네덜란드의 골망을 가르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후반 추가시간 네덜란드에 1골을 내줬지만 더 이상 추가 실점하지 않고 승리를 챙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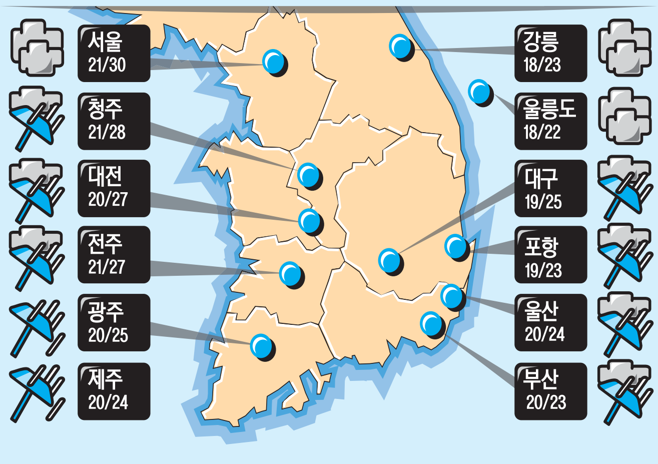
일본은 브라질을 1-0으로 꺾은 호주와 28일 8강전을 치른다. 일본-호주 외에 독일-프랑스, 중국-미국(이상 27일), 잉글랜드-캐나다(28일)가 4강 진출권을 놓고 일전을 벌인다.

/하희철기자

날씨

6/25 목 일출시각 05:12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9	6				1	
7						8		5
	7			1		9	8	
6	9						2	7
	4	2		5			3	
9		3						6
	6				9	2		
			5	6				

		5					3	
					1	2		6
				3	5		8	
		7			9		6	
5		2				9		3
	1		3			4		
	5		4	2				
3		9	7					
	2					8		

스도쿠 정답

5	2	8	1	7	4	3	6	9
4	3	9	6	8	5	7	1	2
7	1	6	3	9	2	8	4	5
3	7	5	2	1	6	9	8	4
6	9	1	8	4	3	5	2	7
8	4	2	9	5	7	6	3	1
9	5	3	4	2	8	1	7	6
1	6	4	7	3	9	2	5	8
2	8	7	5	6	1	4	9	3

2	9	5	8	6	7	1	3	4
8	7	3	9	4	1	2	5	6
1	6	4	2	3	5	7	8	9
4	3	7	1	8	9	5	6	2
5	8	2	6	7	4	9	1	3
9	1	6	3	5	2	4	7	8
7	5	8	4	2	6	3	9	1
3	4	9	7	1	8	6	2	5
6	2	1	5	9	3	8	4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South Korea carmakers being full of energy

<철철 넘치는 한국차의 힘>

Dang Jin Steel Ltd of Hyundai Steel Ltd is a place where optimized steel for car parts are produced and supplied.

This is a meaningful place where Hyundai and Kia created a system first in the world where cars are be built starting from molded metal to a finished car.

Jung Mong Gu, the CEO of Hyundai Motors, determination to enforce the competitiveness has finally paid off.

Hyundai Steel Ltd will start producing factory specialized steel starting next February.

Bar steel and wire rod will be produced 600,000 tons and 400,000 tons each which is a total of one million tons.

This will officially obtain the title for Motor Steel Ltd and surly Hyundai Steel Ltd will have a brighter future.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제품.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자동차에 최적화된 철강재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곳이다.

현대·기아차가 쇳물부터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처음으로 수직일관화를 이루게 된 의미있는 장소다. 자동차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강한 의지가 현대제철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내년 2월부터 특수강 공장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봉강과 선재를 각각 60만t, 40만t 등 연간 총 100만t을 생산한다. 이로써 자동차 철강소재 전문제철소를 완성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제철은 전망하고 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실 없는 연애만 반복… 독신으로 살까요?
올해 뱀띠와 연분… 편안하게 해주세요

싱글남고수 남자 73년 11월 12일 양력 16시경

Q 수많은 사람들의 애로를 해결해주시는데 의상으로라도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의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진찰 후 처방이 올바르게 나오듯 이 저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친구들은 애가 2명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식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 하지 않고 편한대로 지내 왔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운영 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교제를 해왔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아니면 독신으로 살까요? 그리고 고시원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은 어딘가에 존재할 천국이나 낙원을 꿈꾸고 있지만 조금만 직관을 발휘한다면 지금 여기가 귀하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곧 파라다이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랑도 하고 인연을 맺어 결혼도 하게 되는데 선한 마음과 겸손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염두에 둔다면 미래를 위해 헛되지 않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는 '바다가 넓어 만물을 감싸는 형상'으로 도량이 넓은데 생일주(生日柱)가 순수한 비겁(比劫:나와 동급의 오행)으로 조합되어 수왕당절(水旺當節)해월(亥月:겨울철)에 태어났으며 물의 기운이 극왕(剋旺)하여 오행이 균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원국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財星)이 전무(全無)하여 이성의 연이 적으며 운에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지만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고시원 운영 하는 일에 내 코가 석자라 이성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는 여자와 6개월 정도 지내다보면 여자 측에서 결혼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뒤로 빼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독신주의자는 아니므로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가오는 여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올해 뱀띠와 연분이 있어 성혼에 이를 수 있으니 눈높이를 낮추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듯 상대에게 편안하게 해주어 성혼에 이르도록 하는데 7월 11월생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애당초 만나지 마십시오. 고시원운영도 사업이므로 어려운 규제 사항이 있어도 그것은 고시원 이용고객을 위하여 국가에서 복지차원과 인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시설추가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꺼이 받아 들여서 깨끗한 고시원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면 노후까지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25일 (음 5월 10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0년생** 집을 떠나면 고생만 가득합니다. **72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4년생** 과음은 절대 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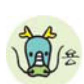
49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1년생**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73년생** 사리판단을 분명히 하세요. **85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5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63년생** 각별히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길합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귀인이 떠났습니다. **76년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8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입니다.



53년생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65년생** 휴식을 취하세요. **77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9년생** 사업을 하고 있다면 때가 좋지 못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54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66년생** 가정에 경사가 생깁니다. **78년생**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90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해롭습니다.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것입니다. **79년생** 이곳저곳에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길합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57년생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69년생** 오늘이 바로 길일입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93년생**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0년생** 쉽게 들어오는 돈을 쉽게 나갑니다. **82년생** 오늘은 빨간색이 귀하에게 행운의 색입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59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71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세요.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5년생** 좋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지 마세요.

'추경 편성'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김하성의 세상보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한달째를 넘기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나 싶더니 다시 불안해 지는 양상이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36일째인 24일을 기준으로 확진 179명(사망 27명)에 격리자가 전날보다 298명 순증한 3103명으로 집계돼 6일만에 순증으로 돌아섰다.

방역당국의 통제망을 벗어난 환자가 강동성심병원등 대형 병원을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환자에 노출된 격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허술한 방역망에 또 구멍이 뚫려 진정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후유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물론 관광,유통, 건설,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환자가 줄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제약사들도 월 2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행·관광업계는 휴가철 성수기인 7, 8월에도 예약 취소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초상집 분위기다.

민생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영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보다 메르스 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다. 42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여파로 배추는 물론 양파, 마늘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스 구제금융 등 대외환경도 녹록치 않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3.7%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마디로 현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경제위축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해 메르스 확산 방지, 가뭄해소등 경제안정 대책으로 10조~15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만큼 추경 편성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충고했다.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초기대응 실패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뒷북대응으로 백약이 소용없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 메르스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보건당국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관리체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전한 소비와 적절한 여가선용 등 일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중소기업계의 대국민 호소에 호응해야 할때다. /뉴미디어국장

다단계 영업까지… 통신사 마케팅 엄정 조사해야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기자>

"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8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 기기변경은 (회사) 포인트가 부족해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규가입만을 받아야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하면서 상위 판매자로부터 이 같은 가입 기준을 전해 들었다. 이 업체는 '판매원이 고객을 통해 개통한 단말기를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별 할당 댓수를 채워야했다.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해 이동사의 다단계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을 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회사는 LG유플러스로 알려진 와중에 두 위원회는 방문판매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위반되는 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처럼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발표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 후원수당 상위 1% 미만(1만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24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 1% 정도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수당 배분 구조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속은 가입자는 과도한 통신비 부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판매권을 가진 다단계 업체의 하루 판매량은 1000대 이상이다. LG유플러스 올해 1월 총 가입자의 8.8%가 다단계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와 판매량이 상당하고 오래전부터 다단계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지만, 특정 이통사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잉된 판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선택해야만 했던 수단이었을까.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소비자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인사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조정호

■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임성빈 ▷ 송무1과장 남판우 △서장급 전보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천기성 ▷ 전산기획담당관 윤영석 ▷전산운영담당관 김대원 ▷심사2담당관 정용대 ▷부동산납세과장 안덕수 ▷자본거래관리과장 최성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고근수 ▷조사2과장 윤승출 ▷조사3과장 전을수 ▷조사4국 조사2과장 오덕근 ▷국제조사관리과장 강성팔 ▷ 국제조사1과장 한덕기 ▷종로세무서장 남해찬 ▷중부세무서장 오광태 ▷남대문세무서장 전영래 ▷성북세무서장 강상식 ▷서대문세무서장 정종식 ▷영등포세무서장 서재익 ▷동작세무서장 김춘배 ▷반포세무서장 배상재 ▷서초세무서장 류득현 ▷성동세무서장 이순구 ▷동대문세무서장 신광동 ▷강동세무서장 이기태 ▷송파세무서장 김기복 ▷잠실세무서장 유재준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정병룡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갑식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종현 ▷ 국제조사과장 전애진 ▷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찬욱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남영 ▷조사2과장 김영상 ▷조사4국 조사1과장 오상훈 ▷조사3과장 이판식 ▷인천세무서장 이기철 ▷북인천세무서장 박경윤 ▷서인천세무서장 유세영 ▷안양세무서장 권용수 ▷동안양세무서장 류택희 ▷용인세무서장 김종찬 ▷시흥세무서장 황대철 ▷수원세무서장 양신규 ▷동수원 세무서장 백운철 ▷화성세무서장 김지암 ▷평택세무서장 이숭건 ▷파주세무서장 이제우 ▷천안세무서장 임동현 ▷공주세무서장 현석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성후 ▷북광주세무서장 이광영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현종현 ▷조사2국장 김일현 ▷남대구세무서장 이희백 ▷북대구세무서장 최정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판덕 ▷서부산세무서장 최명식 ▷북부산 세무서장 이수진 ▷금정세무서장 최정식 ▷본청 이준오 ▷김용완 ▷한지웅 ▷이봉근 ▷김범구 ▷박종희 △초임세무서장 ▷본청 정보개발2담당관 남우창 ▷부천세무서장 김종오 ▷홍천세무서장 최기섭 ▷영월세무서장 김남오 ▷삼척세무서장 홍성범 ▷대전세무서장 오상준 ▷서대전세무서장 김광천 ▷북대전세무서장 고영일 ▷제천세무서장 오태환 ▷홍성세무서장 박헌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황보 ▷서광주세무서장 채병호 ▷북전주세무서장 신재용 ▷목포세무서장 김재철 ▷정읍세무서장 김광근 ▷남원세무서장 정영숙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영중 ▷경주세무서장 배철환 ▷구미세무서장 조상욱 ▷경산세무서장 이응봉 ▷상주세무서장 김준우 ▷영덕세무서장 고점권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임호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유병철 ▷중부산세무서장 윤순상 ▷수영세무서장 김원용 ▷울산세무서장 이훈구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윤왕로

이사 전 보증금 반환 안될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하세요

생활 법률



세입자라면 한 번쯤 겪어볼 만한 난감한 상황이 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가 나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럴 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방빼'라는 집주인을 보면 세입자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전입을 남겨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사를 가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금물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작정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행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임차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전부 청구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한 상태가 아니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홍원기자 hong@